

# 가격경쟁력 갖춘 그린파렛트 공급

##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 제품

이건산업(주)이 지난 93년 독일의 WERZALIT사와 기술제휴로 개발한 그린파렛트는 목재의 부산물인 고온고압 성형방식으로 생산된 압축파렛트이다.

회사측은 두번에 걸쳐 분쇄된 목재부산물을 건조시킨후 집착제를 투입, 성형판에서 고온고압으로 처리하는 전과정을 완전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완제품은 기존의 타 파렛트에 비해 내구성이 강해 변형이나 자체 손상이 적고 적재공간 또한 1/3로 줄일 수 있다.

또 완전 건조된 소재를 사용하여 장기간 운송시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 억제가 가능해 수출시 검역문제를 해결한 점도 그린파렛트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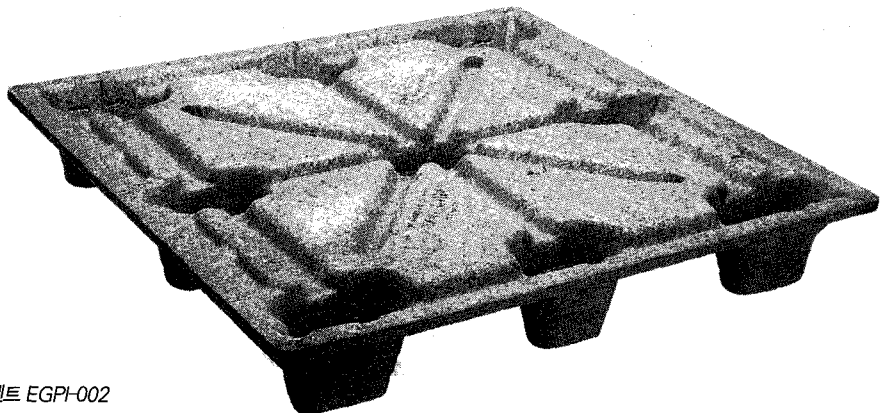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린파렛트는 기존 목재파렛트에 밀려 그간 업계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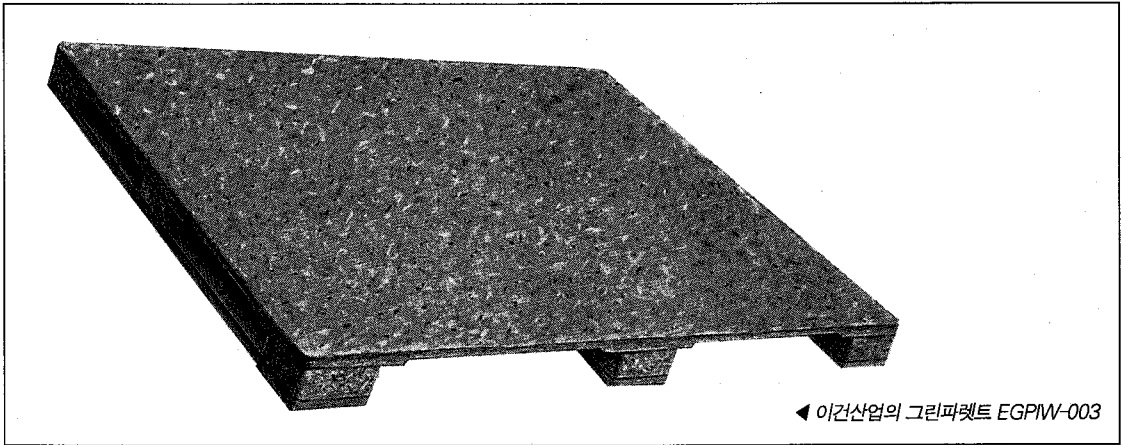
그린파렛트가 목재에 비해 물에 약하다는 것과 이왕이면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자라는 업계 인식때문이었다.

이러한 업계의 인식을 단숨에 불식시킨 것은 가격경쟁력으로 시중에서 1만2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목재파렛트에 비해 같은 규격의 그린파렛트를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7천원 정도다.

여기에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목재파렛트의 경우 환율인상으로 제작자체가 어렵게 되자 목재파렛트 대체용으로 완전한 자리를 굳



▶ 이건산업의 그린파렛트 EGPI-002



[표 1] 그린제품, 목재, 플라스틱 파렛트의 비교

	단 가	동하중	적재높이(50개)	제품무게	질량(1.5톤)
그린파렛트	7,000원/SET	2.0톤	2.2 M	18~19kg	10.0MM
목재파렛트	12,000원/SET	1.5톤	7.0 M	20kg	16.0 MM
프라스틱파렛트	23,000원/SET	1.5톤	7.0 M	23kg	22.0 MM

[표 2] 이견산업의 생산능력

	생산 능력	비 고
그린파렛트	일간 2,000개, 블럭 20,000개	52 m <sup>3</sup> /일
목재파렛트	일간 2,000개	70 m <sup>3</sup> /일

[표 3] 이견의 제품규격

MODEL	Length	Width	Height
EGPW-001	1200	1000	125
EGPW-002	1150	1130	130
EGPW-003	1100	800	130
EGPW-004	1220	1020	140
EGPI-001	1100	1100	150
EGPI-002	1070	1070	150
EGPI-003	1220	1020	145
EGPH-001	1200	800	140

하게 됐다.

과거 그린파렛트의 몇가지 단점을 들어 목재 파렛트를 고집하던 일부 기업체들도 이미 생산 라인을 변경해가면서까지 그린파렛트의 이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사정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는 일이

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 했다.

값비싼 원목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 목재의 부산물을 이용한 것과 사용 후 다시 파렛트의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어낸 것이다.

관계자는 그린파렛트는 개발이후 처음으로 생산량의 100%이상이 소비되고 있는데 회사측으로보면 IMF가 일깨워준 원가절감과 재활용, 환경보호 정신의 덕을 본셈이다.

이외에 이견산업 김포사업본부에서는 목재파렛트 자동조립 설비를 갖추고 있어 월간 1,800m<sup>3</sup> 수준의 목재파렛트를 생산·공급하고 있어 국내 파렛트 업계의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로서 이견산업은 종래의 목재파렛트외에 그린파렛트를 공급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의 물류비 절감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